

주체조선의 위용 온 세상에 떨치신 강철의 령장

전승혁명사적관을

찾아서 (1)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57돐을 앞둔 이즈음 평양시 모란봉구역에 자리잡고 있는 전승혁명사적관으로는 수많은 참관자들이 끊임없이 찾고 있다.

뜻깊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비범한 군사적지와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가령처칠하였던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 이끄시여 내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펼쳐주신 우리 수령님의 전승업적이 얼마나 위대한인가를 더욱 뜨겁게 절감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이시며 제국주의 강압을 반대하는 두차례의 혁명전쟁을 빛나는 승리에 이끄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주체의 군사사상과 전략전술, 주체전법을 창조하신 군사의 영재이십니다.』

얼마전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이 뜻깊게 깃들어있는 전승혁명사적관을 찾았다.

참관자들과 함께 사적관 1호실에 들어선 우리는 미세와의 3년간의 전쟁을 승리적으로 이끄신 후 정전협정문건을 검토하고 비준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우러르며 송엄한 분위기에서 휩싸이었다.

우러르면 우려를 수습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핵심세력을 때려부시고 영웅으로 세운 세상에 멀찌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위대한 김일성동지에서는 단호히 선언하였다.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해방전쟁으로!

그때까지만 하여도 력사는 적의 불의의 공격에 즉시적인 반공격으로 대답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조선의 운명을 두고 우려하며 손에 텁수를 쥐고 주시하던 세계는 우리 군인들의 즉시적인 반공격에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조선에서 일어난 이 기적같은 변화, 온 세상을 경탄시킨 비결은 무비의 담력과 강철의 의지로 힘을 지니신 우리 수령님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전선에 더 많은 무기와 탄약을 보내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호소를 높뛰는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우리 동계군이 생산한 박격포와 포탄, 기판총탄을.

그것은 불비출아지는 전화의 나날 우리로 동계군이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 마치를 들고 자제의 힘으로 만든들이여서 더욱 참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역사적의와 중요성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

2호실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강력한 전시지휘체계를 확립하시고 전시생산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신 혁명사적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이 일어난 다음날인 6월 26일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혁사적인 방송연설을 하시고 전체 인민을 원우격멸을 위한 투쟁에 불려일으켰습니다.

돌이켜보면 3년간의 조국해방전

쟁은 현대전쟁사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었으며 해방된다섯 차례, 우리 혁명무력이 정규부대로 강화될 전망되는 겨우 2년밖에 안되는 때에 치러진 대결전이었다.

1950년대초, 최신장비로 무장한 미제와 맞선 조선의 운명을 두고 세계는 깊은 우려를 표시하였다.

비로 이러한 때 백두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단호히 선언하였다.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해방전쟁으로!

그때까지만 하여도 력사는 적의 불의의 공격에 즉시적인 반공격으로 대답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광식생산에서 혁신하는 겸덕의 광부들이며 군복생산에 열중하고 있던 폭우공장으로 동자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자료들과 군수생산과 관련한 여러 명령, 결정서들은 전시생산보장을 위해 헌신하신 수령님의 혁명적조직들이 얼마나 현명하고 정당한것이었는가를 잘 말해 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후방을 공고히 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 하신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3호실에서도 우리는 절세위인의 거룩한 모습을 우러르며 그 어떤 엄혹한 정세속에서도 드높지 않는 담력을 배짱으로 모든 사업을 조직진행해나가신 우리 수령님의 특출한 위인상에 대하여 탄복을 금치 못하였다.

조국해방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던 때에 지방행정구역개편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군수생산을 위해 바친신 우리 수령님의 끝없는 심혈과 헌신에 대한 열정을 드러내고 있어야 했던 것이다.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2월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눈길을 헤치며 몸소 어느 한 군수공장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생산현장들을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인민군전사를 포함한 없어 직들을 더 죽이지 못한다고 전자들이 얘기해 바라는 것은 포탄을 실컷 쏘아보았으면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더 많은 포탄을 생산하여 전선에 보내줄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추운 날씨에 몸소 일터에 깃들어오시며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로 동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수령님께서 주신 파업을 무조건 판관하겠다는 결의를 굳애 지었다.

우리는 다매체편집물을 보면서 우리 수령님께서 전쟁의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열마나 그나마 심혈과 헌신에 헌신하는 모습이 그대로 달려 있었다.

전화의 나날에 작성된 평양시 복구건설총계획도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에 따라 중앙광장(오늘의 김일성광장), 평양대국장, 충성의 다리, 앙각다리, 대동교, 육교류, 풍라다리, 청류다리를 비롯하여 오른쪽에 헌신하신 4호실에 들어섰다.

50여년전 그때에 이미 평양시 복구건설총계획도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에 따라 중앙광장(오늘의 김일성광장), 평양대국장, 충성의 다리, 앙각다리, 대동교, 육교류, 풍라다리, 청류다리를 비롯하여 오른쪽에 헌신하신 4호실에 들어섰다.

우리는 그 어느때보다도 복잡하고 긴장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그해 초에 아시아 지역에 전개된 미군과 미군부력의 전투기 휘를 단밀화하기 위하여 미군동사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면서 침략전쟁준비를 소집하였다.

당시 우리 나라의 정치정세는 그 어느때보다도 복잡하고 긴장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그해 초에 아시아 지역에 전개된 미군과 미군부력의 전투기 휘를 단밀화하기 위하여 미군동사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면서 침략전쟁준비를 소집하였다.

그러한 일군들을 바라보니 하루빨리 해방시켜주고 미군과 미군부력의 전투기 휘를 단밀화하기 위하여 미군동사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면서 침략전쟁준비를 소집하였다.

그러한 일군들을 바라보니 하루빨리 해방시켜주고 미군과 미군부력의 전투기 휘를 단밀화하기 위하여 미군동사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면서 침략전쟁준비를 소집하였다.

그러한 일군들을 바라보니 하루빨리 해방시켜주고 미군과 미군부력의 전투기 휘를 단밀화하기 위하여 미군동사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면서 침략전쟁준비를 소집하였다.

그러한 일군들을 바라보니 하루빨리 해방시켜주고 미군과 미군부력의 전투기 휘를 단밀화하기 위하여 미군동사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면서 침략전쟁준비를 소집하였다.

그러한 일군들을 바라보니 하루빨리 해방시켜주고 미군과 미군부력의 전투기 휘를 단밀화하기 위하여 미군동사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면서 침략전쟁준비를 소집하였다.

그러한 일군들을 바라보니 하루빨리 해방시켜주고 미군과 미군부력의 전투기 휘를 단밀화하기 위하여 미군동사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면서 침략전쟁준비를 소집하였다.

그러한 일군들을 바라보니 하루빨리 해방시켜주고 미군과 미군부력의 전투기 휘를 단밀화하기 위하여 미군동사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면서 침략전쟁준비를 소집하였다.

그러한 일군들을 바라보니 하루빨리 해방시켜주고 미군과 미군부력의 전투기 휘를 단밀화하기 위하여 미군동사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면서 침략전쟁준비를 소집하였다.

그러한 일군들을 바라보니 하루빨리 해방시켜주고 미군과 미군부력의 전투기 휘를 단밀화하기 위하여 미군동사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면서 침략전쟁준비를 소집하였다.

그러한 일군들을 바라보니 하루빨리 해방시켜주고 미군과 미군부력의 전투기 휘를 단밀화하기 위하여 미군동사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면서 침략전쟁준비를 소집하였다.

그러한 일군들을 바라보니 하루빨리 해방시켜주고 미군과 미군부력의 전투기 휘를 단밀화하기 위하여 미군동사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면서 침략전쟁준비를 소집하였다.

그러한 일군들을 바라보니 하루빨리 해방시켜주고 미군과 미군부력의 전투기 휘를 단밀화하기 위하여 미군동사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면서 침략전쟁준비를 소집하였다.

그러한 일군들을 바라보니 하루빨리 해방시켜주고 미군과 미군부력의 전투기 휘를 단밀화하기 위하여 미군동사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면서 침략전쟁준비를 소집하였다.

그러한 일군들을 바라보니 하루빨리 해방시켜주고 미군과 미군부력의 전투기 휘를 단밀화하기 위하여 미군동사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면서 침략전쟁준비를 소집하였다.

그러한 일군들을 바라보니 하루빨리 해방시켜주고 미군과 미군부력의 전투기 휘를 단밀화하기 위하여 미군동사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면서 침략전쟁준비를 소집하였다.

그러한 일군들을 바라보니 하루빨리 해방시켜주고 미군과 미군부력의 전투기 휘를 단밀화하기 위하여 미군동사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면서 침략전쟁준비를 소집하였다.

그러한 일군들을 바라보니 하루빨리 해방시켜주고 미군과 미군부력의 전투기 휘를 단밀화하기 위하여 미군동사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면서 침략전쟁준비를 소집하였다.

그러한 일군들을 바라보니 하루빨리 해방시켜주고 미군과 미군부력의 전투기 휘를 단밀화하기 위하여 미군동사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면서 침략전쟁준비를 소집하였다.

그러한 일군들을 바라보니 하루빨리 해방시켜주고 미군과 미군부력의 전투기 휘를 단밀화하기 위하여 미군동사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면서 침략전쟁준비를 소집하였다.

그러한 일군들을 바라보니 하루빨리 해방시켜주고 미군과 미군부력의 전투기 휘를 단밀화하기 위하여 미군동사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면서 침략전쟁준비를 소집하였다.

그러한 일군들을 바라보니 하루빨리 해방시켜주고 미군과 미군부력의 전투기 휘를 단밀화하기 위하여 미군동사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면서 침략전쟁준비를 소집하였다.

그러한 일군들을 바라보니 하루빨리 해방시켜주고 미군과 미군부력의 전투기 휘를 단밀화하기 위하여 미군동사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면서 침략전쟁준비를 소집하였다.

그러한 일군들을 바라보니 하루빨리 해방시켜주고 미군과 미군부력의 전투기 휘를 단밀화하기 위하여 미군동사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면서 침략전쟁준비를 소집하였다.

그러한 일군들을 바라보니 하루빨리 해방시켜주고 미군과 미군부력의 전투기 휘를 단밀화하기 위하여 미군동사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면서 침략전쟁준비를 소집하였다.

그러한 일군들을 바라보니 하루빨리 해방시켜주고 미군과 미군부력의 전투기 휘를 단밀화하기 위하여 미군동사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면서 침략전쟁준비를 소집하였다.

그러한 일군들을 바라보니 하루빨리 해방시켜주고 미군과 미군부력의 전투기 휘를 단밀화하기 위하여 미군동사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면서 침략전쟁준비를 소집하였다.

그러한 일군들을 바라보니 하루빨리 해방시켜주고 미군과 미군부력의 전투기 휘를 단밀화하기 위하여 미군동사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면서 침략전쟁준비를 소집하였다.

그러한 일군들을 바라보니 하루빨리 해방시켜주고 미군과 미군부력의 전투기 휘를 단밀화하기 위하여 미군동사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면서 침략전쟁준비를 소집하였다.

그러한 일군들을 바라보니 하루빨리 해방시켜주고 미군과 미군부력의 전투기 휘를 단밀화하기 위하여 미군동사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면서 침략전쟁준비를 소집하였다.

그러한 일군들을 바라보니 하루빨리 해방시켜주고 미군과 미군부력의 전투기 휘를 단밀화하기 위하여 미군동사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면서 침략전쟁준비를 소집하였다.

그러한 일군들을 바라보니 하루빨리 해방시켜주고 미군과 미군부력의 전투기 휘를 단밀화하기 위하여 미군동사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면서 침략전쟁준비를 소집하였다.

그러한 일군들을 바라보니 하루빨리 해방시켜주고 미군과 미군부력의 전투기 휘를 단밀화하기 위하여 미군동사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면서 침략전쟁준비를 소집하였다.

그러한 일군들을 바라보니 하루빨리 해방시켜주고 미군과 미군부력의 전투기 휘를 단밀화하기 위하여 미군동사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면서 침략전쟁준비를 소집하였다.

그러한 일군들을 바라보니 하루빨리 해방시켜주고 미군과 미군부력의 전투기 휘를 단밀화하기 위하여 미군동사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면서 침략전쟁준비를 소집하였다.

그러한 일군들을 바라보니 하루빨리 해방시켜주고 미군과 미군부력의 전투기 휘를 단밀화하기 위하여 미군동사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면서 침략전쟁준비를 소집하였다.

그러한 일군들을 바라보니 하루빨리 해방시켜주고 미군과 미군부력의 전투기 휘를 단밀화하기 위하여 미군동사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면서 침략전쟁준비를 소집하였다.

그러한 일군들을 바라보니 하루빨리 해방시켜주고 미군과 미군부력의 전투기 휘를 단밀화하기 위하여 미군동사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면서 침략전쟁준비를 소집하였다.

그러한 일군들을 바라보니 하루빨리 해방시켜주고 미군과 미군부력의 전투기 휘를 단밀화하기 위하여 미군동사부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면서 침략전쟁준비를 소집하였다.

그러한 일군들을 바라보니 하루빨리 해방시켜주고 미군과 미군부력의 전투기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57돐에 즈음하여

전국직맹일군들과 직맹원들이 응변모임

【평양 7월 22일】 조선중앙통신은 7·27경축 전국직맹일군들과 직맹원들의 응변모임이 22일 중앙로동사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도입에는 김병팔 직총중장위 원회 위원장, 직맹일군들, 평양시내로동계급, 직맹원들이 참가하였다.

출연자들은 독창적인 전법들을 청취하시어 세계『최강』을 위하여 원천학원합기업소 군중문화예술활동집임자 김승수는 힘 기응용의 지략과 천변만화의 전술로 대전해방전투에서 현대포 위전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여 『상송사단』이라고 부른 미 제24사단을 완전히 폐멸시키도록 이끄신 경애하는 수령님은 전설적영웅,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령을 수령님은 청춘원수님의 불멸의 업적과 선군정치로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고 빛나여주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영도력과 풍모를 격찬하였다.

그들은 또한 조국해방전쟁시

기 경애하는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끌어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면서 조국의 흔도를 굽건히 저쳐싸우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기상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응변『위대한 주체전법』에서 순천화학련합기업소 군중문화예술활동집임자 김승수는 힘 기응용의 지략과 천변만화의 전술로 대전해방전투에서 현대포 위전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여 『상송사단』이라고 부른 미 제24사단을 완전히 폐멸시키도록 이끄신 경애하는 수령님은 전설적영웅,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령을 수령님은 청춘원수님의 불멸의 업적과 선군정치로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고 빛나여주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영도력과 풍모를 격찬하였다.

출연자들은 비록 한 반동들의 빙봉화

대하여 서구공공건물건설사업소 직맹이 동해설강사 설악금은 응변『결사옹위』에서 당시의 너성방위인 신 백두의 강령일성동지의 운명에 대한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워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 위해 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국은 청춘파 생명, 희망보다 더 귀중함을 천민군민의 가슴마다에 새겨줄 리수복영복을 향한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강령대국건설에서 승리를 멀쳐가는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위대한 전통을 빛내여나갈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가령 철저한 전회의 불비속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마다 힘승의 신념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인적풍모를 감동깊게 전하는 월도방송

【평양 7월 22일】 조선중앙통신은 7·27경축 청년학생들의 대회에서 김일성동지는 비범한 군사적 실력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응변『백전백승의 기치』에서 정보산업지도국 연구사 체험은 선군의 종대로 조국주의 자들의 반공화국 압살책 등을 짓부시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네월이 꽂혀나는 이 땅우에 강성대국의 위황한 미례를 절쳐주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우리 혁명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시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과 국가,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여 전승의 력사를 영원하며 청년들의 미래는 휘황찬란할것이라고 강조한 대통

강구역청년동맹 1부서 박호성의 응변은 사회주의 수호전과 강성대국 건설대전에서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의 영예를 떨쳐갈 참가자들의 열의를 북돋아주었다.

호소성이 강한 응변들은 전체 참가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모시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정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고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당창건 65돐을 맞여 대경으로 맞이하는데 기여할 의지를 더욱 굳게 다듬게 하였다.

모임에는 청년동맹일군들과 시내 청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조국을 지켜싸운 입민군영동전사들처럼 본사기자와 같은 종합예술에

농업근로자들의 전승음악회 진행

【봉천 7월 22일】 조선중앙통신은 5·7에 즐한 농업근로자들의 전승음악회『위대한 전승 응변』을 열었는데, 이에 참여한 김일성동지께서 빛나게 가22일 통천군 장산리에서 진행되었다.

음악회에서 리명길 농군매중 양원회 위원장은 탁월한 군사전략가이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영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나라의 자주권을 굽건히 저지 주시고 주체조선의 혁명과 기상을 만천하에 펼쳐 주고 계시는데 대하여 언급하

였다.

음악회장소에 걸세위인들이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차 넘치는 가운데 합창『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를 비롯한 전시가요들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적구상을 발들고 원수를 열렬히 칭송하였다.

합창『우리의 7·27』, 남성독창과 방랑『나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혼성 중창『우리는 승리했네』, 혼성 4중창『전선에서 만나자』 등의 푸목들이 무대에 올랐다.

장관리 농업근로자들은 전화의 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곳에 오시여 들으신 『발발이 노래』를 무대에 울려 참가자들의 심음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출연자들은 너성독창『말하라 선군길아』, 혼성 2중창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음악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조국보위의 노래』, 『결정의 길로』, 『임록소야 어서 가자』를 비롯한 전시가요들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적구상을 발들고 원수를 열렬히 칭송하였다.

참가자들은 음악회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승음악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령도따라 뜻깊은 음악을 열렸다.

출연자들은 전당, 천군, 전민을 조국수호전으로 불리운 키시고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탈월한 지지, 비범한 영군술로 침략자들에게 수치스러운 참패를 암기심으로서 혁세에 주고 계시는데 대하여 언급하

【선군령도 제일일세】, 너성독창『쾌일을 밀으라』 등의 푸목들에서 반제 반미 대결전을 승리로 이끄고 나라는 흥성번영의 새시대를 점쳐가시는 불세 출의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업적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음악회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승음악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령도따라 뜻깊은 음악을 열렸다.

출연자들은 전당, 천군, 전민을 조국수호전으로 불리운 키시고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탈월한 지지, 비범한 영군술로 침략자들에게 수치스러운 참패를 암기심으로서 혁세에 주고 계시는데 대하여 언급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외국손님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22일 시이의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과학원대표단을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총련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표시하였다. 방문단성원들은 조국의 흥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혼령의 민주주의 적민족교육학생조국방문단이 경모의 정을

대한 다함없는 흠토의 마음았고 경애하는 수령님께 인사를 드렸다. 그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고 남은 청송을 받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게

실력은 실적으로 증명된다

김일성종합대학 수학력학부 확률 및 수리통계학강좌 교원들

오성으로만 이 강좌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롤할수 없다. 현재 이 강좌성원들은 두세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박사이다. 10명도 넘는 박사들도 강좌의 진영이 꾸려진 것으로 전승을 및 수리통계학강좌는 일명 『박사강좌』로도 불리운다. 출연자들이 들어와서만족도 각이한 환경에 따르는 적응적인 력과 기술과 편안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기쁨을 드릴수 있는 창조물을 남겨놓았다.

교수준비에서나 자질향상측면에서나 대학법위를 벗어나 전국적인 모범을 창조하고자 하는 강좌성원들은 강성대국전설에서 결련 고리들을 풀려나갔다. 출연자들이 원만히 들어나갔다. 지금의 세대들이 이를 히승기자와 하면 비난론을 먼저 생각하듯이 선군조선의 학자라면 마땅히 우리 당에 기쁨을 드릴수 있는 창조물을 남겨놓았다.

시간이 흘수록 강좌장의 이런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고 자신부터 이 사업에서 앞장설 결의로 가슴을 불태웠다.

그런 속에 천리마제 강연장에 그의 발걸음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학생들을 수학계에서 세계 평균을 향해 나아가는 특출한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첫회연단을 향해 투쟁에서도 마땅히 나아온 김정일장군에게는 한평생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을 수학계에서 세계 평균을 향해 나아가는 특출한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을 수학계에서 세계 평균을 향해 나아가는 특출한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을 수학계에서 세계 평균을 향해 나아가는 특출한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을 수학계에서 세계 평균을 향해 나아가는 특출한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을 수학계에서 세계 평균을 향해 나아가는 특출한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을 수학계에서 세계 평균을 향해 나아가는 특출한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을 수학계에서 세계 평균을 향해 나아가는 특출한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을 수학계에서 세계 평균을 향해 나아가는 특출한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을 수학계에서 세계 평균을 향해 나아가는 특출한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을 수학계에서 세계 평균을 향해 나아가는 특출한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을 수학계에서 세계 평균을 향해 나아가는 특출한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을 수학계에서 세계 평균을 향해 나아가는 특출한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을 수학계에서 세계 평균을 향해 나아가는 특출한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을 수학계에서 세계 평균을 향해 나아가는 특출한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을 수학계에서 세계 평균을 향해 나아가는 특출한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을 수학계에서 세계 평균을 향해 나아가는 특출한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을 수학계에서 세계 평균을 향해 나아가는 특출한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을 수학계에서 세계 평균을 향해 나아가는 특출한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을 수학계에서 세계 평균을 향해 나아가는 특출한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을 수학계에서 세계 평균을 향해 나아가는 특출한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을 수학계에서 세계 평균을 향해 나아가는 특출한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을 수학계에서 세계 평균을 향해 나아가는 특출한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을 수학계에서 세계 평균을 향해 나아가는 특출한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을 수학계에서 세계 평균을 향해 나아가는 특출한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을 수학계에서 세계 평균을 향해 나아가는 특출한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을 수학계에서 세계 평균을 향해 나아가는 특출한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을 수학계에서 세계 평균을 향해 나아가는 특출한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을 수학계에서 세계 평균을 향해 나아가는 특출한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을 수학계에서 세계 평균을 향해 나아가는 특출한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을 수학계에서 세계 평균을 향해 나아가는 특출한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을 수학계에서 세계 평균을 향해 나아가는 특출한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을 수학계에서 세계 평균을 향해 나아가는 특출한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을 수학계에서 세계 평균을 향해 나아가는 특출한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을 수학계에서 세계 평균을 향해 나아가는 특출한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을 수학계에서 세계 평균을 향해 나아가는 특출한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을 수학계에서 세계 평균을 향해 나아가는 특출한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을 수학계에서 세계 평균을 향해 나아가는 특출한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을 수학계에서 세계 평균을 향해 나아가는 특출한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을 수학계에서 세계 평균을 향해 나아가는 특출한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을 수학계에서 세계 평균을 향해 나아가는 특출한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을 수학계에서 세계 평균을 향해 나아가는 특출한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을 수학계에서 세계 평균을 향해 나아가는 특출한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을 수학계에서 세계 평균을 향해 나아가는 특출한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을 수학계에서 세계 평균을

조중친선의 역사에 영원할 귀중한 문화재 보

가곡 『홍루몽』 출판 3만 6000여권을 이어가며 70여일간 대절친축에 공연

당의 령도밑에 날로 개화발전하는 우리 주제예술이 새 세기 조중친선의 문화재보를 창조하여 세상을 경탄시키고 있다. 조중외교관계설정 60돐이 되는 주제 98 (2009) 년 조중친선의 해를 맞으며 우리 나라에서 창조되어 내외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곡 『홍루몽』이 지난 5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70여일간 중국에서 대성황리에 공연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비공식방문이 성과적으로 끝난 뜻깊은 시기에 가곡 『홍루몽』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나에게 배이경시와 천진시, 심양시, 대련시 등 12개 도시에 대한 3만 6000여리의 로정을 이어가면서 30여회의 공연으로 조중친선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20세기 주제예술의 부흥기에 『피바다』식 혁명가곡으로 중국인민을 매혹시켰던 피바다가곡은 5대 혁명가곡의 고귀한 유산을 빛내어가는 판류있는 예술단체답게 중국의 유령한 고전소설을 가곡으로 각색하여 완벽한 예술적화폭으로 펼쳐보임으로써 광활한 충화대회에 『홍루몽』 열풍을 일으켰다. 중국인민의 요청에 의하여 우리 예술인들은 체류기일을 거듭 연기하면서 중국으로 돌아온 『홍루몽』의 인기가 날로 높아짐에 따라 각지에서 판류자수는 예상을 웅변 초월하고 중국의 신문, 통신, 방송들과 세계 출판보도들이 앞을 다투어 보도 열을 울리었으며 일찌기 없었던 대절친축이 중국전역을 휩쓸었다.

경이적인 과정을 일으킨 가곡 『홍루몽』의 중국공연은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 중국의 세례대도자들께서 마련해준 조중친선의 화원을 더욱 아름답게 하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세기를 이어 전성기를 펼쳐가는 우리 예술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만방에 퍼시하였으며 조중인민들의 공동위업수행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불멸의 업적으로 빛나는 조중친선의 꽃

우리 당의 세심한 지도속에 가곡으로 완성된 『홍루몽』은 중국땅을 뛰어들어 5대 혁명가곡의 대표적인 고전소설은 창작된 200여년이 지난 오늘 그 진가가 새롭게 밝혀지게 되었다.

18세기 중엽 작가 조선향이 창작한 장희제소설 『홍루몽』은 봉건사회를 반대하는 진보적인 사상과 근대 문학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하여 충화민족의 전통문화의 최고종화로, 중국문화전통의 상징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다.

오늘도 중국에서는 『홍루몽』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의 계승되고 있으며 이 소설은 월곡, 예술영화, TV극과 같은 여러 형식의 예술작품으로 각색되어 중국인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문학예술의 역할을 언제나 중시하신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찌기 우리 인민들이 민족의 혁사와 문화 전통뿐 아니라 세계의 문화도 더 잘 알도록 하기 위해 이 유령한 중국고전소설을 민족가곡형식으로 각색하도록 하였다.

『홍루몽』과 같이 예술적 폭이 넓어지고 짐도가 깊으며 민족성·경과·액체가 매우 뚜렷한 외국고전작품의 가곡화는 풍부한 문화전통과 예술적재력을 고도의 기량으로 요구되는 특수한 예술창작사업이었다.

원작의 요구와 가치를 원만히 살려면서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시대의 요구에 맞게 만들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는 창곡 『홍루몽』의 창작가족과 가곡가족발전에서 획기적전환의 계기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철저히 조선식에 기초하여 현대적 감정정서에 맞는 부드럽고 아름다운 노래들을 만들며 우수한 우리 민요를 바탕으로 하여 창곡 『홍루몽』을 창조하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아래 평등하며 참답게 살려는 인류의 자주적지향과 리성이 뚜렷한 조중친선의 강화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중외교관계설정 60돐이 되는 조중친선의 해에 조중친선의 꽃을 뚜고자 세워놓은 21세기 조중친선의 꽃으로 아름답게 피어났다.

두 나라 조세대령도자들께서 마련해 주신 전통적인 조중친선의 강화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중외교관계설정 60돐이 되는 조중친선의 꽃을 뚜고자 세워놓은 21세기 조중친선의 꽃으로 아름답게 피어났다.

재학중에 있거나 대학을 갈 출입한 신진배우들이 주단역을 맡아 역형상을 흥물 허기로는 우리 당시의 예술인후辈우성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 그리고 주제예술의 대자 출기차게 이어지고 있는데 대학과 대학교육에 대한 일대파시로 된다.

종로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킨 가곡 『홍루몽』의 예술적성과는 판류악편성과 무용, 방광, 무대미술을 비롯한 형상의 모든 요소들에 오늘도 인류가곡예술의 분수령으로 되어 있다.

그 어떤 주제와 양상의 음악작품도 나무랄데 없이 형상할 수 있게 민족악의 우위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양악기를 배합한 독창적인 관현악의 편성. 다양한 생활 활동을 여려 층면에서 깊이 있는 감동적으로 그려주며 두드러지게 살아나는 무용의 개성적인 형상, 가곡예술의 특성을 잘 살려극인들의 내면세계와 생활을 자연스럽고 진실하게 보여주는 듯특한 민요창법과

소개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식의 배합판

현악에 의한 아름답고 화려하면서도 완전

〈최고의 최고예술〉, 〈승배심을 기아내는 본보기〉

가곡 『홍루몽』은 우리 당시 키워낸

세 세대 예술인들의 뛰어난 재능과 높은 실력이 있고 5대 혁명가곡의 귀중한 성과와 경험을 빛나게 구현한 것으로 하여 원작보다 더 칭찬하고 아름다워 황홀한 모습을 펼치게 되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품속에서 자파난 새 세대 예술인들의 재능과 기량이 남김없이 발휘된 가곡 『홍루몽』은 공연무대에서 판중은 그 어떤 세계적인 목표도 절대할 수 있는 정성한 예술제작을 펼친다.

이렇듯 가곡 『홍루몽』은 중국문화에서 특출한 저지하고 있는 21세기 주제예술을 끌어내는 원작으로 되었다.

그 어떤 주제와 양상의 음악작품도 나무랄데 없이 형상할 수 있게 민족악의 우위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양악기를 배합한 독창적인 관현악의 편성. 다양한 생활 활동을 여려 층면에서 깊이 있는 감동적으로 그려주며 두드러지게 살아나는 무용의 개성적인 형상, 가곡예술의 특성을 잘 살려극인들의 내면세계와 생활을 자연스럽고 진실하게 보여주는 들풀특한 민요창법과

인간의 생명을 책임진 참된 보건일군이라는 자각을 알고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 있는 의료일군들속에는 황해남도 인민병원의 의료일군들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파 같이 지적하시였다.

『의료일군들의 책 일성과 역할을 높이는데 기본은 그들이 환자에게 정성을 다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가을 만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도민병원을 나서는 한 사람이 있었다. 대지를 다시 활보할 수 있게 된 기쁨이 한껏 어린 얼굴, 짐승이 넘치는 걸음새...

그 모습을 보고야 소생불가능하다니 도송부전부로 동자신철남동무라고 누가 말하랴. 그는 세 번 전소건설을 앞당기 위한 전투를 벌리다가 사경에 처하였다.

호수상태에 빠진 환자의 환상면적은 전신 70%, 잘 알리지 않는 맥박...

깊으신 조선의 최고령도자들에 의하여 『홍루몽』이 중국고전문학의 최우수대표작, 조중친선의 새로운 상정으로 빛나게 되었다는 글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언론들은 김정일령도자께서 전통적인 민족음악과 독특한 창법을 합하고 배합판현악을 도입하도록 가르쳐주신데 대하여 널리 소개하였다.

『위에 이정일보』를 비롯한 수도의 출판보도들은 가곡가가 강렬한 예술적감각력으로 판중의 이목을 끌었다고 하면서 『민족적특색을 살리고 도식과 틀을 깬 독창적인 형식과 출연자들의 높은 기량, 예술을 대하는 진정이 결합된 조선의 예술장장식』에 경탄을 표시하였다.

가곡 『홍루몽』은 가곡으로는 처음으로 30여회의 공연으로는 처음으로 출연자수는 예상과 달리 초월하고 중국인민의 가슴가슴은 위인홍보와 창승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조선반도연구센터 주임은 김일성주석과 항일전쟁시기부터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 『홍루몽』이 가곡으로 창조된 것은 다른 나라들에서 억만금을 준다. 조선의 예술이 후회하오려서에서 기적을 창조한다고 격찬하였다.

복건성과 호남성당 선전부장들은 조선의 고령도자들의 지도와 판중속에 중국 4대 고전명작의 하나인 『홍루몽』이 무대에 훌륭히 옮겨져 조중친선의 강화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홍분을 금치 못하였다.

천진시장 서기는 김정일장군께서 가곡의 재창조를 발휘하고자 『홍루몽』을 지방으로 퍼뜨렸다.

김정일장군께서는 『홍루몽』을 지방으로 퍼뜨렸다.

『홍루몽』은 가곡으로는 처음으로 출연자수는 예상과 달리 초월하고 중국인민의 가슴가슴은 위인홍보와 창승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위에 이정일보』는 조선의 예술작품으로는 처음으로 출연자수는 예상과 달리 초월하고 중국인민의 가슴가슴은 위인홍보와 창승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위에 이정일보』는 조선의 예술작품으로는 처음으로 출연자수는 예상과 달리 초월하고 중국인민의 가슴가슴은 위인홍보와 창승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위에 이정일보』는 조선의 예술작품으로는 처음으로 출연자수는 예상과 달리 초월하고 중국인민의 가슴가슴은 위인홍보와 창승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위에 이정일보』는 조선의 예술작품으로는 처음으로 출연자수는 예상과 달리 초월하고 중국인민의 가슴가슴은 위인홍보와 창승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위에 이정일보』는 조선의 예술작품으로는 처음으로 출연자수는 예상과 달리 초월하고 중국인민의 가슴가슴은 위인홍보와 창승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위에 이정일보』는 조선의 예술작품으로는 처음으로 출연자수는 예상과 달리 초월하고 중국인민의 가슴가슴은 위인홍보와 창승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위에 이정일보』는 조선의 예술작품으로는 처음으로 출연자수는 예상과 달리 초월하고 중국인민의 가슴가슴은 위인홍보와 창승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위에 이정일보』는 조선의 예술작품으로는 처음으로 출연자수는 예상과 달리 초월하고 중국인민의 가슴가슴은 위인홍보와 창승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위에 이정일보』는 조선의 예술작품으로는 처음으로 출연자수는 예상과 달리 초월하고 중국인민의 가슴가슴은 위인홍보와 창승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위에 이정일보』는 조선의 예술작품으로는 처음으로 출연자수는 예상과 달리 초월하고 중국인민의 가슴가슴은 위인홍보와 창승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위에 이정일보』는 조선의 예술작품으로는 처음으로 출연자수는 예상과 달리 초월하고 중국인민의 가슴가슴은 위인홍보와 창승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위에 이정일보』는 조선의 예술작품으로는 처음으로 출연자수는 예상과 달리 초월하고 중국인민의 가슴가슴은 위인홍보와 창승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위에 이정일보』는 조선의 예술작품으로는 처음으로 출연자수는 예상과 달리 초월하고 중국인민의 가슴가슴은 위인홍보와 창승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위에 이정일보』는 조선의 예술작품으로는 처음으로 출연자수는 예상과 달리 초월하고 중국인민의 가슴가슴은 위인홍보와 창승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위에 이정일보』는 조선의 예술작품으로는 처음으로 출연자수는 예상과 달리 초월하고 중국인민의 가슴가슴은 위인홍보와 창승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위에 이정일보』는 조선의 예술작품으로는 처음으로 출연자수는 예상과 달리 초월하고 중국인민의 가슴가슴은 위인홍보와 창승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위에 이정일보』는 조선의 예술작품으로는 처음으로 출연자수는 예상과 달리 초월하고 중국인민의 가슴가슴은 위인홍보와 창승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위에 이정일보』는 조선의 예술작품으로는 처음으로 출연자수는 예상과 달리 초월하고 중국인민의 가슴가슴은 위인홍보와 창승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위에 이정일보』는 조선의 예술작품으로는 처음으로 출연자수는 예상과 달리 초월하고 중국인민의 가슴가슴은 위인홍보와 창승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위에 이정일보』는 조선의 예술작품으로는 처음으로 출연자수는 예상과 달리 초월하고 중국인민의 가슴가슴은 위인홍보와 창승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위에 이정일보』는 조선의 예술작품으로는 처음으로 출연자수는 예상과 달리 초월하고 중국인민의 가슴가슴은 위인홍보와 창승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위에 이정일보』는 조선의 예술작품으로는 처음으로 출연자수는 예상과 달리 초월하고 중국인민의 가슴가슴은 위인홍보와 창승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위에 이정일보』는 조선의 예술작품으로는 처음으로 출연자수는 예상과 달리 초월하고 중국인민의 가슴가슴은 위인홍보와 창승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위에 이정일보』는 조선의 예술작품으로는 처음으로 출연자수는 예상과 달리 초월하고 중국인민의 가슴가슴은 위인홍보와 창승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위에 이정일보』는 조선의 예술작품으로는 처음으로 출연자수는 예상과 달리 초월하고 중국인민의 가슴가슴은 위인홍보와 창승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위에 이정일보』는 조선의 예술작품으로는 처음으로 출연자수는 예상과 달리 초월하고 중국인민의 가슴가슴은 위인홍보와 창승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위에 이정일보』는 조선의 예술작품으로는 처음으로 출연자수는 예상과 달리 초월하고 중국인민의 가슴가슴은 위인홍보와 창승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위에 이정일보』는 조선의 예술작품으로는 처음으로 출연자수는 예상과 달리 초월하고 중국인민의 가슴가슴은 위인홍보와 창승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위에 이정일보』는 조선의 예술작품으로는 처음으로 출연자수는 예상과 달리 초월하고 중국인민의 가슴가슴은 위인홍보와 창승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위에 이정일보』는 조선의 예술작품으로는 처음으로 출연자수는 예상과 달리 초월하고 중국인민의 가슴가슴은 위인홍보와 창승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위에 이정일보』는 조선의 예술작품으로는 처음으로 출연자수는 예상과 달리 초월하고 중국인민의 가슴가슴은 위인홍보와 창승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위에 이정일보』는 조선의 예술작품으로는 처음으로 출연자수는 예상과 달리 초월하고 중국인민의 가슴가슴은 위인홍보와 창승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

